

제7장: 지정학적 메타지리: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요약

근대 지정학은 세계를 국민국가의 모자이크로 바라보는 메타지리를 보급해왔으나, 오늘날에는 세계화라는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강화가 새로운 메타지리가 되었다. 메타지리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에 질서를 부여하는 공간구조를 뜻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적 메타지리의 시대에는 정치권력은 단순히 영토를 통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동을 통제하는 문제, 정치 경계를 뛰어 넘어 자신에게 유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가 되었다.

테러리즘을 정의하는 것은 논쟁적이며,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다. 특정 행위를 테러리스트 행위로 정의하는 것은 특정 행위주체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반대로 어떤 형태의 폭력, 정치, 행위주체는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은 몇 가지 중요한 지리적 요소를 지닌다. 첫째, 테러리스트들은 특별한 상징성을 띠는 장소를 목표로 삼아 자신들의 메시지를 극대화한다. 둘째, 이들은 특수한 분쟁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시켜 자신들의 대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셋째, 이들은 자신들이 정치적 이타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테러리즘은 꼭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복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공포 조장 역시 국가 테러리즘의 범주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현대 테러리즘의 역사는 네 개의 물결로 진화해 왔다. 19세기 말 러시아 등지의 체제 개혁을 막고자 했던 무정부주의 물결은 국가의 경계 내부에 머물러 있었다. 20세기 초중반 국민주의 물결은 첫번째 물결과 유사하게 장소와 목적이 국민국가였다. 1960년대 이후 나타난 세 번째 이데올로기적 물결은 분쟁의 범위를 국제사회로 확대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여객기 납치 등 국제화된 전술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네 번째 물결인 종교 테러리즘은 세계를 선과 악의 대결인 '우주 전쟁(cosmic war)'으로 인식한다. 이들에게 국가는 악으로 간주되는 행동의 근원일 수 있으며, 이들의 투쟁은 세속적 정치가 아닌 신의 의지를 수행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사망자의 숫자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역시 피난처나 훈련 기지로서 특정 국가의 주권 영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밀접하게 작동하고 있다.

오늘날 테러리스트 조직은 고정된 영토가 아닌 네트워크 형태의 메타지리를 구축해 활동한다. 이들의 네트워크는 최고 수준의 기획과 목표를 제공하는 '핵심마디(core node)', 실제 공격을 책임지는 '주변마디(peripheral node)',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접합마디(junction node)'로 구성된다. 이 네트워크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접합마디를 파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9.11 공격 이후 미국의 보복을 겪으며 알카에다는 중앙 통제 체제를 버리고 기동성, 유연성, 유동성을 지도원리로 삼아 소규모 독립 세포들의 연합으로 진화했다. 또한, 이들은 동남아시아의 테러 집단들과 제휴를 맺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의 테러리즘에 맞서 미국이 전개한 테러와의 전쟁은 지정학적 부조화를 낳고 있다. 알카에다의 위협은 전세계에 흩어진 네트워크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특정 주권국가의 영토를 침략하는 전통적인 메타지리 전략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식은 네트워크의 연결고리를 파괴하는 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슬람 세계를 상대로 십자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빈 라덴의 수사에 힘을 실어주었다.

테러와의 전쟁은 세계 지도국으로서 미국이 지닌 위치를 오히려 위협하는 측면도 있다. 분쟁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은 세계 지도국의 목표인 질서와 안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계 리더십에 대한 도전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테러와의 전쟁은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성을 통한 실시간 감시는 미국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투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발제문 - 플린트의 지정학 코드와 비국가 행위자

서론

플린트는 제7장에서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네트워크적 메타지리가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국가의 영토적 계산을 중시하던 고전적 지정학의 시대를 지나, 현대에는 은행, 기업, 난민 집단 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와 같은 집단이 국경을 넘어 네트워크에 기반한 메타지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알카에다로 대표되는 네 번째 테러리즘의 물결은 영토적 주권국가의 척도를 초월해 우주 전쟁을 수행하는 초국가적 단체로 묘사된다.

플린트에 따르면, 미국은 이러한 비영토적 네트워크를 파괴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같은 주권국가의 영토를 침공하고 정복하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전략을 구사했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에 맞서며 부조화된 지리를 만들어 냈으며, 오히려 미국이 이슬람에 대항해 십자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테러리스트들의 수사를 강화해주었다고 진단한다.

본 발제문은 플린트의 이러한 진단이 표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나, 그 이면에는 미국을 근대 국가로만 한정 짓는 이분법에 기반해 있음을 비판하고자 한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영토적 관성에 의한 지정학적 오판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초국적 자본 및 군사 네트워크가 자신들의 작동 흐름을 방해하는 초국적 테러 네트워크를 제거하기 위한 네트워크 간의 패권 전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플린트의 '부조화된 지리'가 지닌 맹점

플린트는 테러 네트워크에 맞서기 위해 주권국가의 영토를 정복하는 미국의 방식이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한다. 영토를 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부조화된 지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지도국인 미국은 단순히 고정된 국경선 안에 갇혀 있는 전통적인 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자유무역과 세계 투자에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큰 이득을 누려왔다.

또한, 미국은 군사력에 있어서도 초영토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미국은 전세계에 주둔군을 두고 있으며, 전세계 어느 곳에도 몇 시간 내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적 권력이다. 즉, 미국은 영토적 한계에 묶여 있는 행위자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의 네트워크적 메타지리의 적극적인 노드인 것이다.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을 영토에 고착화된 국가 대 네트워크의 대립으로 묘사하는 것은 미국이 지닌 네트워크적 성격을 간과한 불완전한 분석이다.

자본의 흐름 v. 흐름의 교란

종교 테러리스트들의 목적은 정치적 불의와 공간적 구조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다. 빈 라덴과 알카에다의 동기는 서구 기업의 석유자원 착취와 일대에서의 미군 존재 등 아랍의 상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들이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를 공격한 것은 전 세계 금융 자본과 무역의 중심을 타격함으로써 글로벌 자본 네트워크를 교란하려는 네트워크 지정학적 시도로 해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 역시 특정 영토의 획득이 아니라, 시스템과 질서의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모델스키의 세계 리더십 모델에 따르면, 세계 지도국의 통합력은 질서와 안정을 불러오기 위해 고안된 이념과 제도에서 나온다. 종교 근본주의자들은 미국이 추진하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구조와 문화적·물질적 질서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거부하며 우주 전쟁을 수행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단순히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이는 에너지 자원과 금융 자본이 원활하게 순환해야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키고자 하는 측과 이를 악으로 규정하고 교란하려는 테러 네트워크 간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영토화의 재해석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테러 네트워크를 파괴하기 위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영토 점령은 낡은 영토주의적 전략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적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플린트는 테러 네트워크의 구조를 핵심마디, 주변마디, 접합마디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 중 접합마디는 주변마디에 자금을 지원하고 훈련 및 충원을 책임짐으로써 테러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모든 마디와 연결되어 있는 이 접합마디를 파괴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설명한다. 또한, 접

합마디는 이러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국경지대나 도시 등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존재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들이 물리적 거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빈 라덴의 네트워크가 은신하고 있던 접합마디의 지리적 기반을 공격하여 테러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절단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영토의 점령은 목적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노드를 제거하기 위한 전술이었던 것이다. 더불어 테러와의 전쟁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도 낳았는데, 이는 적의 네트워크 노드를 파괴하는 동시에 세계 지도국의 군사 네트워크 노드를 해당 지역에 새롭게 만들어 지정학적 지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공간 전략이었다.

결론

플린트가 제시한 영토적 전략과 네트워크의 부조화는 국가와 네트워크를 지나치게 대립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본 발제문에서는 현대 지정학의 핵심 갈등은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간의 헤게모니 충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세계 지도국은 영토성과 네트워크성 중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영토는 초국적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장일 뿐이다.